

## LECTURE 11

- 5과 인사말 속의 문화
- 영화 '시라노 연애 조작단'

# 어휘

- 예의로 상대에게 칭찬, 감사 등의 말이나 선물을 하는 행동
-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나 기분
- 다른 사람에 대해 먼저 생각해 주고 신경을 쓰다
- 남에게 내 모습이나 상태가 부끄럽지 않게 보이려는 생각
-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
-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아름다운 생각이나 행동
-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다
- 남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추다

인사치레 (out of politeness)

정서 (emotion, sentiment)

배려하다 (give consideration)

체면의식 (face consciousness)

중시하다

미덕 (a virtue, noble attribute)

존중하다

겸손하다 (modest, humble)

~(으)ㄴ 뿐이다

- As a particle, 뿐 means **only**.
- This grammar point specifies that only one specific action has been done and not any more, basically describing the word as "**Just (action)**". It also shows that the **action talked of is small and not big**.

V. S/ A.S (C)	V. S/ A.S (V)/이다
~을 뿐이다	~ㄴ 뿐이다

- Past tense: ~았(었)을 뿐이다
- 머리만 조금 **아플 뿐**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
- 소주 한 잔 **마셨을 뿐**인데 취하네요.

## ~ 었(았) 더 라 면

- This grammar pattern is used for expressing **regret or guilt** about something **i n the past**. (If (I) had..., I would have....)
- 집에서 늦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버스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.
- 늦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을 거예요.
- 공부 열심히 했더라면 시험을 잘 봤을 거예요.

말하기 (P. 58)

# 손님을 초대했을 때

파티를 초대한 사람 (Host):

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 
감사합니다



# 손님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을 때

선물 받는 사람:

뭐 이런 걸 사가지고 오세요. 그냥  
오셔도 되는데..



# 식사를 대접할 때

식사를 준비한 사람:

-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.
-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.





#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할 때

오랜만에 만났을 때 :

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동안  
어떻게 지내셨어요?

어떻게 지내셨어요?



## 만난 후 헤어질 때

- 네, 또 놀러 올게요.
-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.
- 시간이 있으면 언제 같이 식사 한번 해요.

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.



# 가게에서 물건 구경했거나 구입하고 나올 때

손님

-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요.
- 다음에 또 올게요.
- 많이 파세요.



## 문화 차이



## 듣고 말하기 (P. 59)



- 유학 생활: life of studying abroad
- 사고 방식의 차이: the difference in thinking
- 막상: in reality
- 기대: expectation
- 무너지다: collapse, crumble
- 받아들이다: accept, adopt, comply with
- 기어이: 결국에 가서는 (=finally, at last, in the end)
- 요소: element, constituent

읽고 쓰기



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일상생활 속 언어 표현//, 특히 인사 표현을 들여다보면//  
**Daily life** **Look in, peep**

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// 혹은 국민적인 정서까지도 알 수 있다.  
**national**

한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늘 쓰는 말이 있는데 // 바로 “밥 먹었어? 식사  
하셨어요?”이다. 이렇게 식사에 대해 물어보는 인사를 자주 하는 이유는// 과거에  
전쟁이나 가난으로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 //식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기  
**war** **poverty** **귀하다: very rare, scarce** **concern, interest**  
때문이다. 상대에 대한 걱정이나 애정,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// 바로 식사를  
했는지 못 했는지 물어보는 인사말이 된 것이다.

또한 한국인의 인사 표현 중에는// 체면과 겸손을 중시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 
**face**

하다 보니// 생겨난 표현들도 많다.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서// 자신의 아내가

미인이라고 칭찬 받거나 자식이 똑똑하다고 칭찬 받을 경우// 몹시 쑥스러워하며  
**쑥스러워하다: feel shy, embarrassed**

“예쁘기는요/ 똑똑하기는요, 과찬입니다”라고 대답한다. 또 자신의 집을 방문한  
**I am so flattered. besides**

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//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잔뜩 차려 놓고도//  
**treat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다: load the table with lots of food**

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? 손님에게 “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.”// 음식이

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.”라고 하거나 “맛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”라고 자신을

낮추며 아주 겸손하게 말한다.

**낮추다: lower**



가게에서 구경하다가// 또는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 때도 "한 바퀴 돌아보고  
**One round**

올게요.", "다음에 또 올게요.", "많이 파세요."와 같은 인사말에는 자신의

체면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, 또는 상대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 모두  
**Face consciousness**

포함되어 있다.

**포함되다: be included**

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질 때도 //다음에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면서// 아쉬운  
**아쉽다: feel something wanting**

듯이 "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어요.", "언제 시간 있으면 술 한 잔 해요.", "저희

집에 한번 놀러오세요.", "다음에 연락드릴게요."라고 말한다. 이것은

한국인에게에는 정을 느낄 수 있는 다정한 인사 표현이나 외국인들한테는 오해를  
**(多情하다): be kindly, friendly**

받기도 하는 인사말이다.

**오해를 받다/사다: Get misunderstanding**

이런 여러 인사 표현들만 봐도// 동양인들, 특히 한국인들은 겸손을 미덕으  
로 삼아 // '나'보다는 '남'을 더 배려하고// 정을 표현하는 문화권에 산다고  
할 수 있다.

미덕으로 삼다: make a virtue

a cultural area

읽고 쓰기

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일상 생활 속 언어 표현//, 특히 인사 표현을 들여다 보면 // 그  
Daily life Look in, peep  
나라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// 혹은 국민적인 정서까지도 알 수 있다.  
national

한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늘 쓰는 말이 있는데 // 바로 “밥 먹었어? 식사  
하셨어요?”이다. 이렇게 식사에 대해 물어보는 인사를 자주 하는 이유는// 과거에  
전쟁 이나 가난 으로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//식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였기  
war poverty very rare, scarce concern, interest  
때문이다. 상대에 대한 걱정이나 애정,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// 바로 식사를  
했는지 못 했는지 물어보는 인사말이 된 것이다.

또한 한국인의 인사 표현 중에는// 체면  
**face** 과 겸손을 중시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

하다 보니// 생겨난 표현들도 많다.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서// 자신의 아내가

미인이라고 칭찬 받거나 자식이 똑똑하다고 칭찬 받을 경우// 몹시

쑥스러워하며 "예쁘기는요/ 똑똑하기는요, 과찬입니다"라고 대답한다. 또 자신의  
**feel shy, embarrassed** **I am so flattered.**

집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//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잔뜩  
**treat** **load the table with lots of food**

차려 놓고도//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? 손님에게 "차린 건 없지만 많이

드세요.//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."라고 하거나 "맛은 없지만 많이

드세요"라고 자신을 낮추며 아주 겸손하게 말한다.  
**lower**

가게에서 구경하다가// 또는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 때도 "한 바퀴 돌아보고  
**One round**

올게요.", "다음에 또 올게요.", "많이 파세요."와 같은 인사말에는 자신의 체면 의식 과  
**Face consciousness**

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, 또는 상대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 모두 포함되 어  
**be included**

있다.

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질 때도 //다음에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면서//

아쉬운 듯이 "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어요.", "언제 시간 있으면 술 한 잔 해요.",  
**feel something wanting**

"저희 집에 한번 놀러오세요.", "다음에 연락드릴게요."라고 말한다. 이것은

한국인에게는 정을 느낄 수 있는 다정한 인사 표현이나 외국인들한테서는

**be kindly, friendly**

오해 를받기도 하는 인사말이다.  
**Get misunderstanding**

이런 여러 인사 표현들만 봐도// 동양인들, 특히 한국인들은 겸손을

**미덕으로 삼아**

**make a virtue**

// '나'보다는 '남'을 더 배려하고// 정을 표현하는 문화권에  
산다고 할 수 있다.

~도록

- It also expresses the **extent or degree** of the following state or action.
- 목이 아프도록 노래를 불렀어요. (I sang a lot, to the point where my throat hurt.)
- 바나나를 질리도록 먹었어요. (I ate so much banana that I got sick of it.)



~도록

- We walked around to the point that our feet hurt.



우리는 발이 아프도록 걸어다녔어요.

~도 록

- I will love to the point that I will die.



‘시라노 연애 조작단’ 단어

영화 단어



위장 취업 (fake employment)



**꼬시다 (slang. Seduce, pick up a man/woman)**





**자랑하다; show off, brag**

# eliminate

없애다, 제거[삭제]하다



전화영어는 콜앤톡

## 제거(除去)하다



# Misjudgement

[www.emmasaying.com](http://www.emmasaying.com)

**오산 (miscalculation; misjudgement)**



**잠적하다(=사라지다, 잠수 타다)**



영화 명대사  
인천상륙작전

작전 (tactics, strategy)



연기하다



사소하다





아위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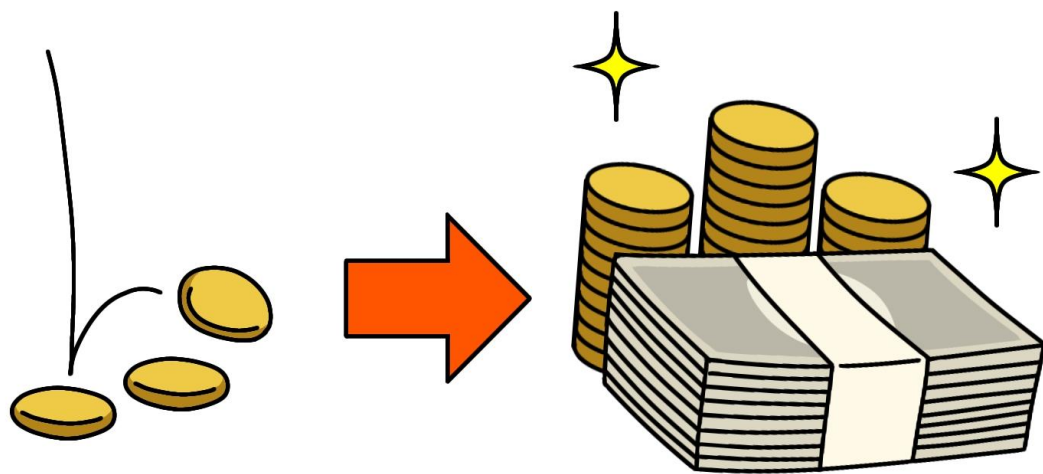


**벅차다 (=힘들다, beyond one's ability)**



**관두다 (=그만두다)**





자금



**여유가 있다/없다(餘裕; having more than enough of time, space, money, etc.)**



**좁쌀 (hulled foxtail millet)**



통제하다 ↔ 통제 받다 (be controlled)



기계치



순정(純正/純情); 1) original, 2) pure love

# ACTING 대본

이병훈 견적서입니다. 검토해 보시죠.

이상용 아, 예상보다는 높은 금액이네요.

이병훈 뭐,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부담이 되시면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. 좀 더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?

이상용 아, 아닙니다, 하는 걸로 하죠. 최근에 펀드 (fund) 수익 난 게 좀 있어서 다행히 여유가 좀 있네요.

이병훈 예...

이상용 우리는 껌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죠? 하아~! 이게 운명이야, 운명.

이병훈 그런 일 가끔씩 있어요. 예. 운명 아니에요.

이상용 아이, 근데 저는 눈도 좋고, 근데 이건 알이 없는 거 같은.

이상용 아, 이거요? 오~ 되게 좁쌀만하네요.

철민 당신은 이 안경을 쓰는 순간 우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. 안 보이는 게 보이고, 안 들리는 게 들리고, 입은 열면 청산유수.

안경을 쓰면 슈퍼맨, 안경을 벗으면 클라크.

## 다음 시간

- **Memorize the C.C (p. 54)**  
**(line 9~end, 앞으로도~이번 주말은 좀..)**
- Midterm Guidelines